

한국의 ICT ODA 사업 현황 및 신남방국가 지원 방안

이재윤 수석(jylee@nipa.kr), 이준호 수석(jhlee03@nipa.kr),
박준민 책임(pjm@nipa.kr), 길성원 선임(swkil@nipa.kr)
글로벌ICT본부 글로벌협력팀

2019. 8. 29

목 차

- I. ICT ODA 개념 및 한국 ICT ODA 현황
- II. NIPA ODA 사업 추진 현황
- III. 주요 신남방국가 ICT 산업 현황
- IV. 종합 및 시사점

I . ICT ODA 개념 및 한국 ICT ODA 현황

1 ICT ODA 개요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공적개발원조) 개념

-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 원조를 의미
- ODA는 지원방법과 형태에 따라 양자, 다자, 유상, 무상원조로 구분

방법	형태	내용	비고
양자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KOICA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수출입은행
다자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 ODA 등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 등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평등해소 및 글로벌 공동번영이며 새천년개발목표(MDGs¹)를 보완한 후속 과제로 UN 총회에서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²) 강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ICT ODA 정의 및 의미

- 이전에는 ICT ODA에 대한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OECD DAC*분류에 따라 경제 인프라 지원 분야의 통신으로 분류되는 통신정책·행정, 정보통신기술 등에 한정

*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들로 구성된 OECD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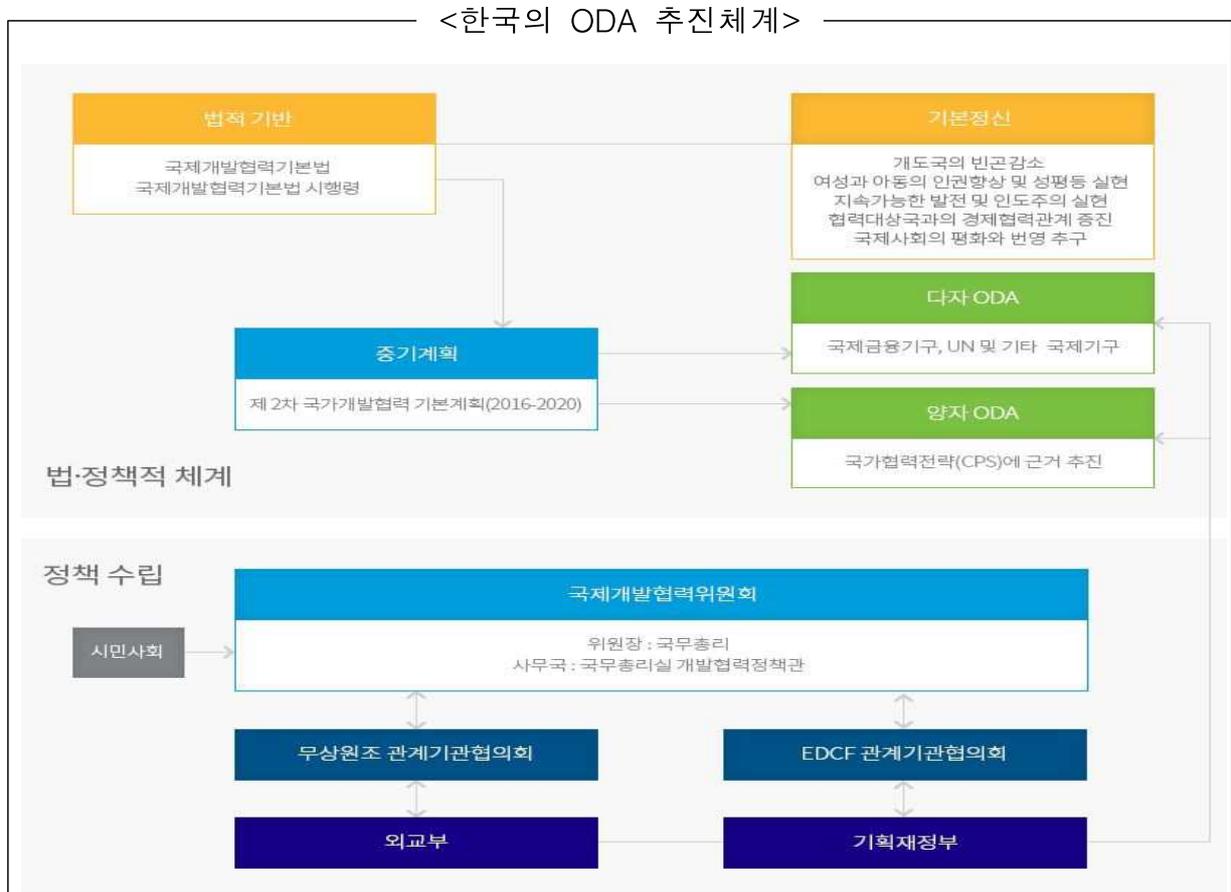
1)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UN이 2000년에 채택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
 2)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UN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최근 ICT 확산, 융합 진전에 따라 ICT 자체, ICT 활용 및 융합 등 ICT 요소가 내재된 ODA 범위로 개념 확대
- ICT ODA는 ODA 사업 내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타 산업과의 연계성, 수원국 경제 성장 및 환경개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

2 한국의 ICT ODA 현황

□ 한국 ODA 수행체계

- 우리나라 ODA 수행은 무상원조 KOICA(외교부) 및 유상원조 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상원조 지원규모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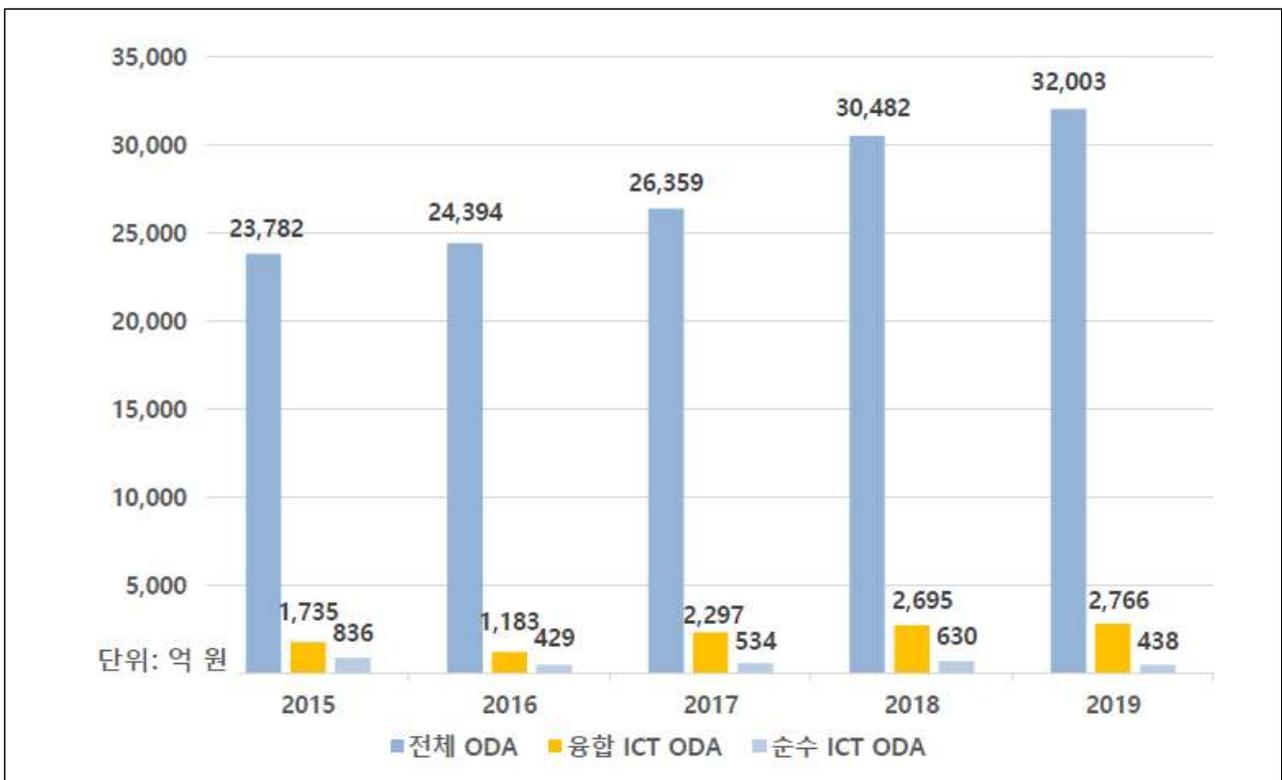
- '19년 ODA 규모는 약 3조 2천여억 원으로 1,400여 개 사업을 추진 중 이며 '18년 기준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 비율은 약 78:22,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 비율은 44:56 수준

[출처]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2018

- 우리나라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평가 부실 등의 문제 제기 지속

□ 한국 ICT ODA 운영 현황

- (KOICA)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긴급구호, 기타 등 총 7개 분야로 분류하고 ICT는 범분야로 취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ICT ODA 사업 수행
- (수출입은행)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위생, 환경보호,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수임,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분야별로 관련 ICT 프로젝트 지원
- (총괄현황) 최근 5년간(2015~2019) 한국의 ODA 규모는 약 13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순수 ICT 분야는 약 2,867억 원(전체의 약 2.1%) 이며 ICT 융합, 활용 등 확장된 적용범위로는 약 1조 676억 원(전체의 약 7.8%)을 차지
 - * ICT 자체요소(통신망, 방송, 정보시스템 등) 지원 사업은 순수 ICT로 분류, ICT 활용 및 사업요소 중 일부 활용되는 경우 융합 ICT로 분류



<최근 5년간(2015~2019년) 우리나라 ICT ODA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체 ODA 규모	23,872	24,394	26,359	30,482	32,003	137,020
융합 ICT ODA 규모	1,735 (7.3%)	1,183 (4.8%)	2,297 (8.7%)	2,695 (8.8%)	2,766 (8.6%)	10,676 (7.8%)
순수 ICT ODA 규모	836 (3.5%)	429 (1.8%)	534 (2.0%)	630 (2.1%)	438 (1.4%)	2,867 (2.1%)

[출처] 한국 ICT ODA 진단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II. NIPA ODA 사업 추진 현황

1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 사업개요

- (목적) 개발도상국 정보통신·방송 분야 전문 인력을 초청하여 한국의 ICT 기술, 정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
 -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인적역량 강화는 ICT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여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기회 창출에 핵심역할 수행
- (내용)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지원대상국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14회의 초청연수 실시('19년 기준)
 - 개도국 공통의 개발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 경험·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수과정 운영
 - 인적자원 개발 협력을 통해 ICT기술 외교를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운영이력

- (전체 초청규모) '98년부터 '18년까지 155개국, 6,027명 초청교육

연 도	'98~'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국가수	127	85	96	99	54	58	55	58	61	155
연수생수	3,598	439	349	335	282	258	286	256	224	6,027
개최과정수	252	21	17	15	12	13	13	13	13	369

- (신남방국가 주요 6개국 NIPA 초청연수 참여결과) '98년부터 '18년까지 6개국, 1,246명

연 도	'98~'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ICT발전도 상위3개국*	417	54	21	41	23	15	25	10	10	616
ICT발전도 하위3개국**	393	68	25	24	35	19	24	28	14	630

* 신남방 국가 중 ICT 발전도 상위 주요 3개국 :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 신남방 국가 중 ICT 발전도 하위 주요 3개국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비즈니스 미팅) 초청연수와 연계한 비즈니스 미팅 실시를 통해 국내기업이 수원국의 기술적 필요 수요에 직접 대응 및 교류 기회 확대 유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즈니스 미팅건수	252건	342건	541건	478건	417건	238건

□ 주요성과

- (환류) 초청연수 참여 연수생들이 자국의 정책반영, 재교육, 후속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형태로 개도국 발전에 활용

— < 에티오피아 SW교육 환류로 사회적 가치 실현 > —

- '17년도 초청연수 SW교육 과정 참석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 '코딩교육' 등 SW교육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국 내 여러 학교에서 세미나와 체험교실 개최, 코딩 동아리 설치와 교육 운영 등을 추진
- (개도국 초청연수 참가) 에티오피아 EIAR ICT 과장인 Mr. Tadesse Anberbir Awoke는 2017년도 'SW교육과정' (11. 20~11. 30) 연수 참여



초청연수 과정 참석('17.11.)



현지 체험교실 개최
(Today Happy Village School)



현지 체험교실 개최
(Kotebe Metropolitan Univ.)



교내 코딩 동아리 설치 운영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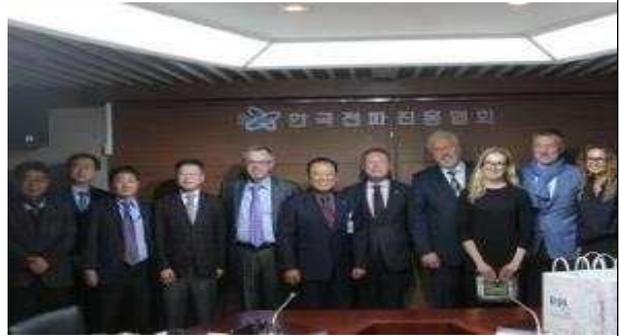
현지 체험교실 및 세미나 개최
(Yong Roots English School)

< 우크라이나 ‘한류 열풍’ 기폭제 역할 >

- ‘15년도 초청연수 참가를 계기로 한국-우크라이나 양국 간 파트너십 협력 및 K-Content Bank 사업 연계를 통해 한국콘텐츠 홍보, 관련 법률 개정 및 한국방송 진출의 통합적 성과를 이끌어냄
- (개도국 초청연수 참가) 우크라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리 아르테멘코, Iurri Artemenko) 외 2명 2015년도 ‘차세대방송기술과정’(5. 31~6. 6) 연수 참여



한국-우크라이나 Star Light Media Group MOU 체결 (17.9.18.)



한국-우크라이나 방송 분야 교류 협력 방안 협의 (16.11.14.)

- (국내 전문 기업 및 기관 참여) 초청연수 사업은 다양한 ICT 융합 과정을 운영 중이며 국내 ICT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 및 기관의 개도국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활용

< 국내 ICT 및 제조·서비스 융합 기업 참여 >

- 국내 ICT 및 ICT-제조·서비스 사례에 관한 전문 기업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
- ‘18년도 초청연수 항만물류 과정, ‘19년도 금융IT 전문가 과정, ‘19년 농업 IT과정 등 ICT-제조·서비스 산업의 융합을 통한 개도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및 국내 전문 기업 및 기관 ICT 및 산업 전문가 적극 참여



항만 자동화터미널 견학 및 솔루션 소개 (사이버로지텍 조준희 수석)



현대무백스 사업현황 및 U&터미널 운영시스템 소개 (현대무백스 이승미 부장)



한국의 증권결제시스템 강의 및 부산은행 IDC센터 견학 (한국예탁결제원 고흥석 팀장)



전북임실 박충훈 스마트팜 농가 견학 및 적용기술 소개 (농촌진흥청 이상규 연구관)

2 K-Lab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목적) 미얀마 공립 정보통신대학* 内 구축한 디지털제작 인프라(K-Lab)를 통해 청년메이커 양성 및 창업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등 미얀마 경제발전에 기여
 - * ICT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12년 설립한 미얀마 양곤소재 특성화 대학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 실정에 맞는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원조를 위한 시제품 제작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 (내용) K-Lab 설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업 종료 후 자립기반 조성 지원
 - 디지털 제작 장비(3D프린터, CAD등)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디지털제조인프라 구축 및 시설운영
 - 국내기업의 참여를 통한 디지털 제작 장비 활용교육 및 메이커톤3), 멘토링, 글로벌 인턴십 등 양국 청년창업자간 교류 지원
 - 사업 종료 후 K-Lab의 지속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지 관리자 양성 및 교수 연수 등 자립기반 프로그램 지원

< K-Lab 구축 현황 >



(장소) 미얀마 양곤 UIT 캠퍼스 내

(규모) 2개실, 면적 108㎡

※ 1호실 (하드웨어 제작) : 3D프린터 운용 및 납땜 등

2호실 (소프트웨어 구현) : 레이저커터, CNC 운용 등

(주요장비) 3D프린터 5대, CNC라우터 1대, 레이저커터 1대, 테이블 CNC 1대, 비닐커터 1대, 데스크탑 5대, 노트북 13대 및 각종 수공구 등 111종 777개

3) 메이커톤(Make a thon) :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행사

□ 운영이력

- (K-Lab 사업 추진이력) '16년 K-Lab 구축을 시작으로 연도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20년 자립역량 강화 추진 계획까지 추진 현황 및 계획

< 연도별 K-Lab 추진결과 및 계획 >

2016년(구축)	미얀마 정보통신대학 內 교육인프라 및 디지털제작장비 설치·구축
↓	
2017년(시범운영)	현지 맞춤형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디지털제조문화·인식 확산
↓	
2018년(안정)	미얀마 정보통신대학과 프로그램·학점 연계 등 확대 및 시설운영 안정화
↓	
2019년(확산)	미얀마 전 지역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랩 매니저와 교수연수 등 전문 운영인력 육성 프로그램 통해 자체운영 역량강화
↓	
2020년(자립강화)	사업 종료 후 K-Lab의 지속운영 및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자립역량 강화

□ 주요성과

- 단순 물자 지원형 원조를 넘어 대상국가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성공모델로서 미얀마 청년층의 제조업·ICT 기반 혁신역량 강화
 - 누적 이용자수 4,000명 초과, 현지 교수진·근로 장학생 활용 등 수원기관 인력을 통한 운영자립도 강화(전체 프로그램의 70%수준)
 - 개방형 경진대회를 통해 미얀마 內 9개 대학참여 등 현지 청년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메이커 문화 확산 도모
 - 현지 예비창업자 발굴·교육을 통해 교육수료생의 창업 지원
 - K-Lab 교육수료생 Clash or Robots 2018* 대회 참가하여 전체 2위 수상
 - * 미얀마 West Yangon Technological University Science & Research Club에서 주최하는 대학 간 로봇 대회

Ⅲ. 주요 신남방국가 ICT 산업 현황

1 ICT 발전도 상위 그룹 ICT 산업 현황

□ ICT 발전도 상위 3개국 주요 지표 및 정책

- 정보통신 개발지수 및 전자정부 개발지수를 기반으로 대략 전세계 100위권 이상이며 OECD DAC 분류상 중저소득국 이상으로 분류되는 3개국(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국가	OECD DAC 분류	정보통신 개발지수* ('17년)			전자정부 개발지수** ('18년)		
		ICT 접근성	사용성	기술 능력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능력	온라인 서비스
말레이시아	고중소득국	63위			48위		
		62위	48위	101위			
태국	고중소득국	78위			73위		
		91위	68위	70위			
필리핀	중저소득국	101위			75위		
		104위	99위	86위			

* 정보통신 개발지수 : 국제통신연합(ITU)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정보통신 개발지수

** 전자정부 개발지수 : UN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전자정부 개발지수

□ (말레이시아) 공공부문 ICT 전략플랜 2016-2020 실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IT 부문 발전 추진

- 말레이시아 행정현대화-관리계획위원회(MAMPU⁴)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공공 부문에서의 ICT활용률을 증가시키는 공공부문 ICT 전략플랜(PSISP⁵)을 발표
- 이를 기반으로 공공분야 ICT 정책 및 기술보급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정책 벤치마킹에 적극적
- 말레이시아의 ICT 관련 개발지수는 ASEAN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나 기술능력은 소득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ICT 접근성 62위, 사용성 48위로 ICT 인프라는 양호하나 기술능력 101위로 관련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4) MAMPU : Malaysian Administrative Moderniz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Unit

5) PSISP : Public Sector ICT Strategic Plan

□ **(태국)** Thailand 4.0을 정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확대 및 디지털 태국으로의 도약 시동

○ Thailand 4.0 정책을 통해 10년 내 디지털 태국으로 전환하고 20년 이내에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 확보 목표

○ 이와 관련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 중심으로 ICT 기반 기술 고속 성장 중

- 태국 빅데이터 시장은 2014~2020년까지 연평균 26% 성장 예정이며, 2020년 시장규모는 약6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출처] 국가별 정보통신방송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 2016년 기준 태국은 PC보급률(29.5%)보다 이동통신 보급률(132.1%)이 훨씬 높으며 매년 가입자 수가 5%이상 빠르게 증가 중

[출처] 국가별 정보통신방송현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 태국은 아시아 웨어러블 시장 주요국으로서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과 맞물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은 ASEAN 내 국가 중 가장 균형 잡힌 ICT 발전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용성(인터넷 보급률 등) 분야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ITU, UN에서 조사한 정보통신/전자정부 개발지수에서 각각 78위, 73위 기록

□ **(필리핀)** 필리핀 디지털 전략 2011~2016 추진 후 정보통신부(DICT⁶⁾ 설립을 통한 과학·교통·기술 분야 발전전략 설립 추진

* DICT: 기존 과학기술부, 교통통신부 및 통신위원회 등을 통합한 필리핀 ICT 관련 최고 정책기관

○ 필리핀 정보통신부(DICT)는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e-Filipino 사업을 추진

○ 현재 세계75위권인 전자정부시스템을 향후 5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 계속

○ 필리핀은 인프라 관련 지수인 ICT 접근성(모바일 보급률 등)과 사용성(인터넷 보급률 등)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나

○ 이외 다른 항목을 비롯한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ASEAN 내 개발도상국 중 상위권에 위치

-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의 ICT 접근성(104위), 사용성(99위)을 기술능력(86위)으로 보완

6) DICT(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필리핀 정보통신부

2

ICT 발전도 하위그룹 ICT 산업 현황

□ ICT 발전도 하위 3개국 주요 지표 및 정책

- 정보통신 개발지수 및 전자정부 개발지수를 기반으로 전세계 100위권 이하이며 OECD DAC 분류상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국가	OECD DAC 분류	정보통신 개발지수* ('17년)			전자정부 개발지수** ('18년)		
		ICT 접근성	사용성	기술 능력	통신 인프라	인적자원 능력	온라인 서비스
캄보디아	최빈국	128위			145위		
		124위	119위	150위			
미얀마	최빈국	135위			157위		
		139위	121위	146위			
라오스	최빈국	139위			162위		
		140위	132위	136위			

* 정보통신 개발지수 : 국제통신연합(ITU)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정보통신 개발지수

** 전자정부 개발지수 : UN에서 평가하는 국가별 전자정부 개발지수

-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과학기술 혁신 국가 도약을 목표로 '캄보디아 ICT 마스터 플랜 2020' 등을 바탕으로 정부 중심의 ICT 발전 전략 추진 중

< 캄보디아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2020 >

- ▶ (비전) 과학기술 혁신 국가 도약 / 산업혁신, 정부주도 과학기술 정책 지식 생산
- ▶ (목표) 과학기술 기반 확립 / 연구개발 역량 확보 / 과학기술 환경 조성 / 핵심 산업 역량 개선
- ▶ (추진전략)
 - 인재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 캄보디아 주도의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성공사례 발굴과 성과 축적,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선택과 집중

- 지적이고 편안한 국가를 비전으로 권한부여(ICT 교육 및 활용), 연계성 보장(ICT 인프라 및 디지털 격차 개선), 능력함양(ICT생태계 조성), e-서비스 강화(IT 관련 서비스 강화) 등 4가지 전략적 목표 수립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6년 조사한 네트워크 준비지수에 따르면, 전체 139개국 중 109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신남방국가 중에서도 열악한 수준
 - 전체 면적 기준, 3G 네트워크 커버리지는 30%, 4G는 13% 수준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40%에 불과함

□ (미얀마)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정부 및 통신 마스터플랜 및 관련 정책 수립 중

구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2016-2020 주요 내용
단기 목표	정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대민 업무의 질 향상, 투명한 비즈니스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
중기 목표	정부와 민간, 기타 공공 영역과의 온라인 기반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인프라 및 정책 기반 확보
장기 목표	국민의 온라인 연결 및 의사소통 지원

- ICT 인프라 확대를 위한 초기단계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공공 IT서비스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급률 확대, ICT 인력양성 등 ICT 접근성 확대에 주력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년 ITU 정보통신 개발지수에 따르면, 미얀마는 전년 대비 13계단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발전 속도임
- 특히,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및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으나 브로드 밴드 등 유선통신 시장의 경우 노후화된 지역 망 및 구축비용의 제약으로 낮은 성장을 보임

□ (라오스) 2030년까지 디지털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종합 발전 계획 2016-2025' 및 '2030 정보통신기술 비전 계획'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주력

- '16년 발표된 제8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기본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던 7차 개발계획에서 나아가 고도화된 통신 체계 구축, IT서비스의 현대화, 전자상거래 촉진 등의 진일보한 IT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음
 - 하지만 소득대비 높은 통신 구축·운영비용 등의 한계로 유·무선 네트워크 보급률, ICT 활용능력, 교육역량 등 전반적인 정보통신 지표에서 낮은 수준에 그침
- 소프트웨어 시장은 관련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외산 IT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으며 전문 교육시스템, 교육인력 역시 부족하여 자체 개발인력 양성 및 기반 구축이 여의치 않은 구조

IV. 종합 및 시사점

□ 종합 및 시사점

-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각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 방향성 설정과 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 최근 개발협력 환경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슈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종합적 운영전략 및 사업간 연계 강화 등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한국은 ICT산업 선진국으로 ODA 분야 중 ICT ODA의 의의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ICT ODA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3조 2천억원(19년) 규모의 ODA 사업 추진 중이나 ICT 분야는 약 2천 7백억원 규모로 전체의 약 8.6% 에 불과함, 총 ODA 규모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대비 큰 차이가 있으나 장점 산업인 ICT 분야를 특화하고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율성 제고 가능
-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운영 중인 ICT ODA사업의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추진
 - 현재 NIPA가 운영 중인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및 'K-Lab 운영' 사업 등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측정과 효율제고 연구를 계획 중이며 ICT ODA 융합사업 발굴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예정임
- 한국-신남방국가간 협력관계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신남방 국가별 산업상황 및 ICT 정책방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ICT ODA 지원 추진 필요
 - ICT 발전도 상위 그룹의 신남방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발전된 ICT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선진기술 적용이 가능한 ICT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정책지원 보다는 기술지원 중심의 ODA 사업 추진을 통해 대상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이 대상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ICT 발전도 하위 그룹의 신남방 국가들(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은 국가 ICT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수준과 기본적인 ICT 인프라 보급의 한계가 존재하는 그룹으로 네트워크망 구축, 데이터센터 설립 등의 ICT 인프라 구축과 기술컨설팅, 초청연수 등 다양한 ODA 사업 전개 필요

<참고 문헌>

- 1)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정부부처합동(2018)
- 2)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6)
- 3) 한국 ICT ODA 현황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 4)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도자료, 국무조정실(2018)
- 5) 과학기술·ICT ODA 현황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
- 6)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 ODA 정책방향, 산업연구원(2015)
- 7) ODA 지원현황, 국무조정실(2019)
- 8) ICT Development Index 2017, ITU(2017)
- 9) The Malaysian Public Sector ICT Strategic Plan 2016-2020, MAMPU(2016)
- 10) Thailand's Economic Catalyst, C ASEAN(2018)
- 1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Cambodia) 2017-2020, RUPP(2017)
- 12) Telecommunication and ICT Development Policy(Cambodia), MPTC(2017)
- 13) The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2016-2020), MPI(2016)
- 14) ICT Policy & Development in Laos, MPT(2016)
- 15) Developing Myanma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ctor Toward Inclusive Growth, ADB(2015)
- 16) 국가별(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9)

※ 본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